

순창군, '당뇨 치휴(休) 프로젝트' 선보인다

건강장수연구소 실랜드서 29일부터 5박 6일 과정 진행 자연속에서 휴식·힐링·교육·치유·의료서비스 통합 연계

순창군이 웰빙과 힐링을 넘어 치유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당뇨 치휴(休)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초 먹거리 기반이 회복되어야 한다'의 저자 이계호 교수와 함께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박 6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당뇨 환우와 가족들 80명이 참여한 전국 규모의 당뇨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군은 최근 건강장수연구소 실랜드 내 15동의 황토 방갈로가 준공됨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를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장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체득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교육·치유·의료서

비스 등을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SD 메디칼의 당화혈색소 검사와 한국의과학연구소 장내 미생물 검사, NNB의 나노 바블 수, 혈당·인바디 검사 등 종합적인 임상검사와 관찰을 통해 효과성 분석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순창군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개발한 청국장을 활용한 면역력 강화 음식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군이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발효 미생물 분야도 적극 활용해 수료식 전·후 장내 유익 균주를 참가자별로 비교분석해 향후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 되는 방안도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휴과 식자재, 사람은



지난해 강천산에서 열린 당뇨캠프에 참가한 군민들이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건강체조를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하나로 연계돼 있다는 이계호 박사의 이론을 토대로 좋은 휴에서 생산된 식자재에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끼니별 색다

른 먹거리가 참가자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몸을 일깨울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y@



정읍시,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지원센터 워크숍'

정읍시는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지난 24일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학연관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2019년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지원센터 기업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전북도, 정읍시의 관계 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산학연관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또 초청과 세무, 미생미생물을 이용한 차세대 미생물비료 개발, 농식품 R&D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소개를 주제로 전

문가 초청 강연도 이어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एको 축산 정정 정읍 조성 사업으로 축산의 4대 문제인 냄새·질병·분뇨·건강을 능동적으로 해결, 시민과 함께 하는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국가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목표로 2017년 9월 개소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입주기업 보육실과 연구실, 시험생산 시설, 공동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실의 입주기업 보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파고 넘는다

지역업체 7개사와 117명 고용창출 MOU체결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가 지역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117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군산시 고용위기지원센터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소속사 7개 업체와 고용 창출 제2차 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수림산업(주) 등 총 7개 기업이 117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기업체와 지원기관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전망이다.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지역본부, (사)캠텍종합기술원도 최적이

업환경조성으로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참여 기업은 (주)신광하이메탈, 티케이티(주), 수림산업(주), (주)에센테크, 동양기계공업(주), 픽스테아(주), (주)벤티스 등이다.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체가 고용 창출로 인한 인센티브로 기업 성장지원지원금과 컨설팅 지원,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력수급 및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풍수해보험 보험료 고창군, 추가 지원

고창군이 다음 달부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군민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준다.

전체 보험료의 26.2%를 지원했던 것을 64.5%로 늘린다.

여기에 국비와 도비로 26.2%를 내주고 있어 고창군민은 전체 보험료의 9.3%만 부담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등이 풍수해나 지진 피해를 보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고창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남원시,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 편다

남원시가 농번기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25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1억3400만원을 투입해 28개 마을에 공동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개 마을의 공동급식지원(사진)과 비교해 곱절 이상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 사업은 전북도와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수행을 필요한 자금 중 20%(2600만원) 가량을 전복도로부터 지원받았다. 시는 전북도의 지침에 따라 40일 동안 기본적으로 공동급식을 지원한

다.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 20일을 추가 지원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함으로써 가구별로 음식을 준비해야하는 일손을 영농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복지를 더욱 향상하기 위해 올해 농업부서 조직개편에서 농정과 내에 농업인복지팀이 신설됐다"면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화된 농업인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익산시,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익산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취업 드림카드는 체크카드 발급을 통한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지원된다. 최대 180만원(월 30만원)을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접적 비용(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면접비 등)과 간접적 비용(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익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 중인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333명이다.

대상은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9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63-859-521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군산해경, 내달 중학생 대상 국민참여 해양안전 체험교육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해양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구명조끼 착용법, 선박사고 탈출법, 익수자 구조방법 등을 체험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경비함정을 타고 해경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된다.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구 덕남동 임야, 추천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